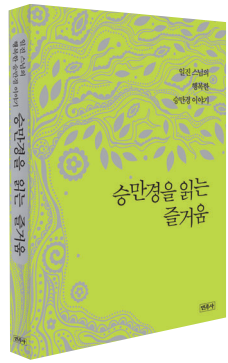


언제부터인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단풍 나들이객이 전국 산하를 수놓는 여행의 계절이 되었다.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 산의 유혹이 크다 해도 깨달음 향기 듬뿍 담긴 책의 유혹보다 못하다. 민중사에서 책 읽기 좋은 햇살 좋은 가을 날, 연이어 두 권의 매혹적인 책을 출간했다. 제목만으로도 눈길을 사로잡는 《망풍 스님과 애벌레선禪》(보현 스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일진 스님). 필자 두 분이 불교계를 대표하는 비구니스님인 것도 특별하게 보인다. 보현 스님은 모렐 가수 출신 최초의 비구니스님이고, 일진 스님은 조계종립대학교 인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와 일본 교토불교대학을 졸업한 불교계 대표적인 학승으로 현재 운문사 주지·종회의원으로 선과 교학, 행정 등 이와 사를 두루 겸비한 비구니스님이다. 두 분 다 인물이 출중하여 얼굴을 뵈는 것만으로도 감화를 받게 된다.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禪, 일진 스님의 행복한 승만경 이야기,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한 권은 선 수행 이야기요, 한 권은 승만경 해설서로서 두 권의 책이 스타일도 다르고 내용이 다르지만 두 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하다. 행복, “우리는 모두 부타의 씨앗을 품고 있다. 우리 안에 깃든 에너지를 끌어내어 행복하게 살자”는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두 권의 책에 담긴 글줄, 행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다. 마음 근육이 단련 되니, 새로운 힘이 샘솟는 것 같다. 감기 걸리기 쉬운 일교차 심한 가을날 건강 챙기기에도 도움이 될 듯한 두 권의 책을 살펴 들여다보았다.

## 운문사 일진 스님의 행복한 승만경 이야기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스님 지음  
신국판 변형 | 312쪽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차별은 존재하고, 소의 계층이 존재한다. 인도는 더욱더 심각하다. 인도인의 90퍼센트가 믿고 있는 힌두교는 여성 차별과 카스트라는 신분차별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종교이다. 그래서 인도는 ‘신의 나라, 성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반면에 불평등한 사회, 인권권의 사각지대로도 유명하다.

불가촉천민(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도 최하층민) 출신으로 인도의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암베드카르는 60여 년 전 50여 만 명의 불가촉천민과 함께 불교로 개종하여 인도 사회의 변혁에 앞장섰다. 하지만 불교 10여 년 전 인도 불가촉천민 출신 여성으로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풀란 데비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이 사주한 괴한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했다. 인도 여성의 인권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21세기인 지금도 차별받는 여성이 많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여성이 성불하여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대신 사자후를 설하고 부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혁신적인 일입니다. 이 점만으로도 승만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마어마하게 큼니다.”

승만경은 ‘누구나 다 여래의 씨앗을 품고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설파하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다.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이라고 하는 여래장 사상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불러왔고,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래장사상은 선불교(禪佛敎)의 사상적 근거이기도 하다.

이 책의 저자인 일진 스님은 2천 년 전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다는 여래장 사상을 일깨워준 승만경의 탄생만으로도 대단히 혁신적인 일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다.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평등하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승만경의 가르침은 인도인들뿐만 아니라 역사상 인류에게 준 가장 큰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설한 유일한 경전 승만경, 비구니스님 최초의 승만경 해설서!

《승만경》은 여성 불자인 승만 부인이 설법을 하고, 옆에서 부처님이 승만 부인의 설법을 듣고 지

여성도 성불하고 불가촉천민도 성불할 수 있는 절대 평등의 진리의 세계에 감화받다



지해 주고, 승만 부인이 성불하여 보광(普光)여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 경전이다.

일체중생 실유불성(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을 강조하는 불교는 만 생명의 절대평등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 불교 또한 초기경전에는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했다. 법화경에서는 용녀가 남자의 몸으로 변하여 성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승만경에서는 여성의 몸 그대로 성불하는, 여성즉신성불설(女性即身成佛說)을 설파하고 있다. 또한 부처님에게만 사용하는 ‘사자후’라는 말을 여성인 승만 부인의 설법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승만경이 페미니즘 경전임을 알 수 있다.

“한 비구니스님이 ‘여자가 백 년을 해 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자가 100년을 기도 수행해도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다음 생에 비구가 되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신다는 노스님의 말씀이 세상사 때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성은 불가에서 열등한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여성이 설한 경전인 승만경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이 책의 서두에서 일진 스님은 40여 년 동안 승만경에 천착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밝혔다. 우리 승가에도 여전히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일진 스님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기 삶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만경의 가르침을 체득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왜냐하면 승만경은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여래장사상, 일승 사상을 확실하게 드러낸 경전이기 때문이다.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승만 부인의 10대 서원을 통해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전이기에 일진 스님은 기회만 있으면 불자들이 함께 즐겨주며 마음으로 승만경을 읽고 참 뜻을 참구해 가고 있다.

“여성 불자들이 승만경을 수지 독송하면서 실천한다면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단한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수행과 삶, 여성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승만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부터 저는 새로운 원을 세웠습니다.” - 본문 중에서

세상 사람들의 절반은 여성이다. 아니 세상사람 모두 여성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대부분 여성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란다. 즉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남성이든 또 다른 여성이든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에서 나아가 나라에 행복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이 지구 전체가 평화로워지는 주춧돌이다. 이 책의 행간 행간마다 ‘승만경을 읽는 공덕으로 여성이 행복한 사회가 되어지이다’라고 기원하는 스님의 애정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어 자못 감동적이다.

이 책은 비구니 스님 최초의 승만경 해설서다. 비구니인 일진 스님이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집필한 40여 년 동안 체험과 사유, 수행과 다양한 곳에서 설한 강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결실하기에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승만 부인의 열 가지 큰 서원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준다.

“여래가 될 수 있는 씨앗 즉 여래장이 번뇌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그 오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환우를 처음 봤을 때 본래는 깨끗한 환우인데, 얼마간 있으면 때가 묻어서 누렇게 됩니다. 더러워진 옷을 빨면 또 깨끗해집니다. 옷을 빨는 것이 수행입니다.” - 본문 중에서

일진 스님은 왜 사람들이 여래로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다. 환우이 여래장이요, 때가 번뇌요, 빨래가 수행이라는 것이다. 한편 승만 부인은 열 가지 서원을 통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로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진 스님이 법석法席에 앉아 강론講論을 하면 멀고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며 바람에 풀이 쓸리듯 감화를 받는 것도 이러한 수행자로서의 평소 모습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진 스님이야말로 이리와 사를 구족한 승가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40여 년을 경전 연구와 탁월한 변재辯才로 전법 활동을 해온 경험으로 저술된 일진 스님의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을 많은 이들이 읽고 부처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기를 고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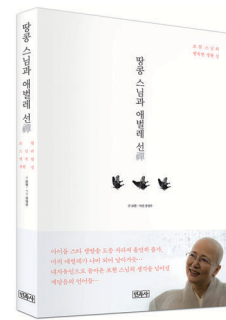
- 전 전국비구니회장, 현 운문사 회주, 명성명로 스님의 추천사 중에서

운문사 일진 스님의 잔잔하고도 활력 넘치는 해설을 읽는 동안 바람에 풀이 쓸리듯 감화를 받게 된다.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가 뽀얗게 스며들며 마음이 환하게 마음이 열리고 개인과 사회를 위해 크나큰 동력이 될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가 충만해진다. 제목과 부제처럼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해지며 삶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 아이돌 스타 생방송 도중 사라져 홀연히 출가

### 망풍 스님과 애벌레 선禪

힐링 멘토로 돌아온 보현 스님의 행복한 생활 선 이야기



보현 스님 지음 | 강명주 사진  
변형신국판 컬러 | 13,800원

망풍 스님과 애벌레 선, 제목만 봐도 흥미진진하다. ‘80년대 아이돌 스타가 왜 출가했을까? 망풍 스님은 어떤 분이요 애벌레 선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힌다. 보현 스님은 지난 1999년 자전소설 (타래)에서 파노라마와 같은 인생 역정을 풀어냈다면 이 책에서는 수행 이야기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생활 선을 통해 마치 애벌레가 나비 되어 날아가듯이 세간에서 짙어지고 있던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 이야기가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수행을 통해 당신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싶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씁쓸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삭발하는 날, 환희심에 차서 날아갈 것처럼 흥분했습니다. 춤이라도 명실 명실 추고 싶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를 출가로 이끈 망풍 스님을 더 이상 꿈에서 뵈지 못했습니다. 목적이기에 데려다주고 떠나는 배처럼 망풍 스님은 그날 이후로 생생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행방불명, 갑자기 사라진 스타, 잠적한 이유’를 밝히는 방송이 만들어져 방영될 정도로 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보현 스님, 인기 스타가 고행 길을 걷는 출가 수행자가 된 것에 대해 추측만 무성했는데, 스님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출가 인연 이야기를 밝혔다. 풍중가피로 이루어진 스님의 출가 인연 이야기가 매우 독특하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그동안 망풍 스님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는데, 깊은 내면의 세계를 보았기에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스님의 말씀에서 참으로 당당한 수행자의 면모가 느껴진다.

스님은 스타 시절, 자살 충동을 느꼈을 정도로 괴로웠는데, 출가 수행하면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당신처럼 고통에서 벗어나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20대와 노인들,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스님의 체험으로 빛은 특유의 통찰과 생활 선 수행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자기가 옳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만인을 선지식으로 섬길 때 고통이 사라진다

“참 나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답을 뻔뻔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보현 스님에게서 깨달음의 향기가 전해진다. 스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임을 책에서 확실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선 수행을 통해 참 나를 보면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던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가슴속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애써도 그 번뇌 망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행하기 힘들다”, 원수를 부처님으로 선 지식으로 섬길 때 번뇌 망상과 고통에서 사라진다는 스님의 말씀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스님의 수행력으로 빛은 한 말씀 한 말씀이기에 안심입명을 넘어 근원적인 깨달음으로 이끌어 준다.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운동선수는 시합 긴장중후군, 텔런트는 연기 긴장중후군, 가수는 공연 긴장중후군 등등. 긴장중후군은 다 불안함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고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러한 긴장중후군에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잘 관찰하고 본질을 찾는 공부를 해 나가면 보너스를 받았다는 고타운 느낌으로 세상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제 수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역설하는 보현 스님, 바쁜 현대인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는 생활 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서도 짬을 내서 할 수 있는 7분 수행, 생활 선으로 환골탈태의 삶을 열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다.

이 책은 5개의 장과 부록으로 편집되어 있는데, 각 장의 문을 열 때마다 스님이 작성한 찬불가요가 한 편씩 실려 있다. 이 책에서 마음을 울리는 스님의 찬불가요와 부록 ‘행복충전소 부처님 마음’에 담긴 스님에게 부처님 마음 불자들의 수행 체험담을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민중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인브빌딩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ngsas.org

# 보

# 축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 아 래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 행사제목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제11대 회장 석대응 대종사 제3대 이사장 석월인 대종사 취임대법회

◎ 일시 : 불기 2558(2014년) 양력 11월 17일  
(음력 윤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1-3)  
(02)735-4111~3번

◎ 사무처 : (02)756-1227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 3호선 경복궁역 6번 출구 1,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 버스 103, 109, 150, 401, 402, 406, 704, 1711, 7016, 7018 7022, 7023, 401

◎ 광역버스 5500, 9001, 9400, 9401, 9411, 9600, 9602, 9706 9708, 9713

◎ 주차장(지하)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또는 세종로 주차장을 이용 하시고, 주차권은 식장에서 확인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동부상기맨션2층 216-1호 전화: (042)285-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17호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02) 756 - 1227 홈페이지 : http://www.jongjeong.com